

■ 특특뉴스

주꾸미 위판량 5분의 1로 급락

올해 초 저수온 현상이 길어지면서 주꾸미 주산지인 서해안의 주꾸미 위판량이 5년 전인 2020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주꾸미 제철인 지난 2월 말부터 4월까지 주산지인 서해안(인천 경기 충남 전북)의 주꾸미 위판량은 404t(톤)으로 지난 2020년(2,007t)보다 약 80.0%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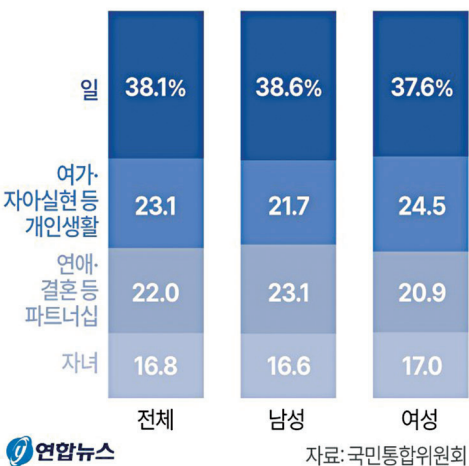
전북에선 같은 기간 주꾸미 위판량이 151t에서 13t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간 주꾸미 어획량을 보면 2020년 3,327t에서 작년 1,748t으로 47.5% 줄었다. 봄에 잡히는 주꾸미의 감소 폭이 더 컸다.

■ 그래픽 경제

2040 청년기 최대과업 조사 결과

청년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
1월 31일~2월 14일 25~44세 남녀 2,690명 대상 조사



2040 청년기 최대 과업은 ‘일’

20~40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남녀 모두 ‘일’ (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가·자아실현 등 개인생활’이 23.1%,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이 22%, ‘자녀’가 16.8%로 뒤따랐다.

국가균형발전·산업경쟁력·노동제도 개선 등 전달

지역 경제단체 대선공약 제안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공약 16건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 과제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 지역경제 현안을 넘어 광주·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핵심 과제를 폭넓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상의는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이는 광주·전남·전북 간 전력망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특화산업 등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사업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 지원을 지적하며, 임기 내 조

② 광주상공회의소

지역 산업현장·경제계 의견 수렴 군공항 이전 등 16건 공약 발굴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예정

기 착공을 위한 확실한 재정·정책적 이행을 요구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지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KENTECH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운영재정이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다. 문화분야



‘광주 경제계 핵심 공약’ 책자. 광주상의 제공

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광주도서관,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이 포함됐다.

기후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융복합 정책으로 평가된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큰 제약

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요청됐다.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세제 분야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를 인화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에 담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정책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난 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위원장과 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약 과제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연수 기자

전남정보진흥원,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은 최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5년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JCIA, 전남도, 참여 지자체 5개 군(고흥·신안·완도·진도·해남), 수산양식 생산자 단체 관계자와 사업 수행기관(목포대산학협력단·솔트룩스·㈜유에스티21)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사업성과와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양환경 관측기기, 김·전복 사육관리

솔루션, 빅데이터 플랫폼과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 등의 시연이 진행됐다.

첨단 ICT기술 기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지자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점이 되는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1차 연도가 데이터 수집, 플랫폼 개발을 위한 설계 등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2차 연도에는 수산양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수요자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도출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이 최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5년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JCIA 제공

수 있도록 사업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ICT 기업들과 함께 수산양식산업의 현안문제들을 완충시키고 기후변화와 양식한

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제3회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일시 2025년 5월 10일 (토) 08:30

장소 햇불코스 (전남대학교정문 종합운동장 → 광주중앙초등학교)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의로운 항쟁이며 대한민국을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5·18사적지 걷기 축제를 통해 자칫 잊힐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참가자들에게 민주주의 성장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열이 갇혀 있는 사적지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걸으면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염원을 깊이 계승하고자 합니다.

▶ 주 최 광주광역시교육청 M 전남매일

▶ 주 관 M 전남매일

▶ 협 조 광주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